

Theme 학습의 취지와 오답노트

수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를 느끼지만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스스로 판단/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왜 이것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학문제 상에서 뿐만 아니라 수험생활 전반에서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형적인 수능수학을 대비하는 1년 커리큘럼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출분석			N제 및 6월 모의평가 + EBS 분석				9월 모의평가분석 실전 모의평가 파이널자료		기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속했다는 듯 이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리고 다수가 이 순서의 이유를 모릅니다. 특히나 다들 “마지막에는 기출로 돌아가야지!” 라고 말하면서도 그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마지막에 기출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이유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미리 말하자면 ‘평가원의 문체나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는 많이 쳐줘도 30점짜리 정답입니다. 애초에 수능 직전에 평가원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게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생각해봅시다. 모든 커리큘럼의 취지를 알아내 봅시다.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봅시다.

정답을 바로 알려주기 보다는 생각하는 습관을 갖도록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뜯어봅시다.

1. 기출분석을 가장먼저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대답해봅시다.

기출분석이란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문제들 사이의 공통된 출제원리/과정을 정리하는 것**’ 입니다. 이는 이전 칼럼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커리큘럼의 가장 처음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나 문제를 배우더라도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공부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더 잘 푼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더 쉽고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공부합니다. 이는 공부를 잘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의 학습효율이 차이나 실력이 점점 벌어집니다. 이 점을 적용하면 초기학습의 중요성과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나 문제들을 봤을 때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져야 앞으로의 학습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학습 초반에는 전체내용 중 문제출제에 사용되는 주요내용 및 표현 등을 파악하여 정리해야 하고 그것이 기출분석을 초반부에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출분석의 취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 하셨나요? 다음페이지부터 생각할게 많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출분석			N제 및 6월 모의평가 + EBS 분석				9월 모의평가분석 실전 모의평가 파이널자료		기출	

설명했던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알 수 있겠지만 커리큘럼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의 취지입니다. 기출분석과, N제, 실모들은 각기 다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이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실패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출분석이 덜 끝났는데 다들 N제 풀기 시작했다고 자신도 N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사다놓은 5권의 N제중에서 다 끝낸 게 2권정도 되는데 다들 실모사서 풀기 시작하니까 실모 풀니다. 그리고 다들 다시 기출로 돌아간다니까 따라서 기출로 돌아가지만, 2월과 11월에 푸는 기출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사형선고 받듯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어리석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 정말 조금의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커리큘럼 표에 맞춰서 정확히 4월 중순까지 기출을 해야 할까요? 이에 관해서는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N제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2. N제의 취지는 기출분석을 점검하는 것

기출분석을 하다보면 기출문항 중에 30번 킬러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다 풀고 설명할 수 있다. 기출분석을 80%이상은 한 것 같다. 이런 순간이 찾아 올 겁니다. 그런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풀었던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푼다고 절대 기출분석의 완성도가 90%~95%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 선생님들이 기출 반복해서 풀라고 하셨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반복해서 풀라는 것은 한 가지 해석에 그치지 말고 다양하게 바라보고 해석하며 복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의 취지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의미 없이 반복하며 실력이 늘지 않는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그 문제는 비문학의 텍스트만도 못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복하라는 것이냐?”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문제를 푸는 팀을 두면 됩니다. 그렇다고 팀만 뒤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더라?’ 라는 식의 기억을 해내려 하면 안 되고 문제 자체를 잘게 분석해서 문제의 조건과 학습을 통해 얻은 주요내용을 연결 지으려 해야 합니다.

“아니 처음 풀 때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됩니다. 문제를 푸는 팀 사이에 제대로 된 학습을 해서 실력이 올랐다면 당연히 됩니다. 이게 취지죠. 즉 기출반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점검의 의미는 실력상승의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큼니다. ‘초반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의 변화를 체감하며 실력상승을 확인하고 최종 점검하는 것’ 이것이 모든 커리큘럼에서 수능직전에 다시 기출로 돌아가는 학습의 취지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출분석			N제 및 6월 모의평가 + EBS 분석					9월 모의평가분석 실전 모의평가 파이널자료		기출	

학생들은 참 효율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전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학습에 있어서 효율만큼 중요한 것이 뭘지 이제는 이해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지’

이것을 이해하여 자신의 현 상황을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그에 맞는 학습을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스스로 분석하고 취지에 따른 방안을 도출하는 것. 이것은 학습계획과 수학문제풀이에 있어 중요합니다.

1. 자신이 하위권이라 기출분석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쟀 수학을 먼저 해야 할까요?

나름 괜찮은 질문입니다. 기출분석은 우선 전체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분석하며 주요개념을 도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가정됩니다. 그런데 노베 분들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출분석을 꾸역꾸역 하려 애씁니다. 결과를 예측해봅시다. 취지에 맞는 학습이 불가하고 문제를 암기하게 됩니다. 원리 따위는 없습니다. 취지에 맞는 기출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노베용 개념강좌와 연습문항을 통한 준비가 필요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커리큘럼이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겠군요.

2. 작년에 기출분석을 열심히 한 재수생입니다. 바로 N제를 해도 될까요?

그래도 기출문제를 다시 보면서 정리할 것을 추천합니다. 작년에는 안보였던 것이 보일 수 있고 안 풀렸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분석의 경우 혼자서 하는 것 보다는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생이 1~2년 분석하는 것 보다는 강사님들이 수년간 분석해온 내용이 깊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취지’

대부분의 기출분석 강의는 개념보다는 개념을 문제유형과 연결 짓는 행동역역 및 풀이위주입니다. 그리고 강의에서는 문제유형을 확인하는 방법과 왜 이 유형을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즉, 반드시 행동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취지와 풀이 중 무엇일까요? 취지입니다. 그래야만 알고 있는 방식과 형태가 조금 다르게 출제 되도 관찰을 통해 취지에 맞는 풀이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N제의 취지는 학습내용 점검이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지 않고 약한 파트부터 골라서 여러 N제들의 그 파트를 우선 푸는 것도 취지에 부합하고 좋습니다.

3. 6월까지 기출 잡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기출분석이 덜 되었는데 정답률 50%도 안 나오는 N제를 억지로 잡고 있는 것 보다 6.02×10^{23} 배 정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초조해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점검하고 취지에 맞는 학습이 가능 한 시점이 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 기출문제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형별 공통점을 분석하여 핵심을 파악하는 취지를 생각하면 우선 연도별 기출문제집은 맞지 않고 단원별로 반복하며 공통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확률과 통계와 수1은 평가원 뿐만 아니라 경찰대, 사관학교 출제문항 중 괜찮은 것이 정말 많으니 경찰/사관문제까지 반영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분석 강의를 듣는다면 인강선생님 책도 좋지만 그거 한권만 보면 부족합니다.

5. N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N제들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취지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풀었을 때 정답률 75%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딱히 추천드릴 것은 없고, 3년 이상 출판된 것들은 퀄리티가 보장된 것이니 믿고 사셔도 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희망은 시중 엔제를 난이도가 쉬운 것 부터 전부 다 풀었으면 합니다.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은 해보세요. 생각보다 금방 합니다. 쉬운 엔제는 2일 컷 하기도 하고 엔제 풀다보면 문제가 다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6. EBS 연계교재 중요한가요? 봐야 할까요?

최근 들어 중요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풀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학생 스스로 깊게 분석하는 것 보다는 누군가 요약분석 해주는 정리 자료를 보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 압축해서 만든 자습서를 업로드 해 줄 겁니다. (맞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7. 수학실모 활용법과 취지를 설명해주세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기회에 작성해보도록 하죠.

8. 수학 마무리는 어떻게?

~~우주설 파이널자료~~ 미만 잡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월~9월의 기간보다 10월~11월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다음 기회에 작성해보도록 하죠.

Theme 학습의 취지와 오답노트

오답노트라 쓰고 복습노트라 읽고 읽는다.

오답노트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학생들 중 하나는 질문을 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이 중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쉽게 말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수의 학생이 '나중에 혼자 해보아야지' 또는 '나중에 질문해야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에서 나중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행위입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풀 거라며 문제를 책에 안 풀고 공책에 문제를 푸는 행위' 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 문제집을 다시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푸는 행위는 나중에 시험지에

문제를 풀 때 공간 활용에 낯선 느낌을 주거나 이에 따라 계산실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냥 책에다 푸세요. 다시 풀게 될 일이 생겨도 그 책의 10문제 정도입니다.

나중을 배제합니다. 오답노트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한 번 봤을 때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을 텀을 두고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즉 농도 짙은 복습입니다. 같은 문항 수 대비 최고효율의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취약한 내용이 정리된 문제이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1. 오답노트가 습관화 되지 않았다.

2. 어차피 나중에 보지 않는다.

어? 난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거고 다수의 학생들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말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현실적인 오답노트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오답노트가 습관화 되지 않았다.

의 원인은 분석합시다.

별거 없습니다. 귀찮습니다. 문제를 옮겨 적는 행위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접어주세요.

문제를 옮겨 적어봤자 당신이 지금 받아 적는 것은 텍스트에 불과하지 내용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가위로 잘라 붙이는 행위나 갤러리에 모아두는 행위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위한 접근성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모르는 문제가 모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발상을 반대로 전환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으는게 아니라 확실히 아는 것을 제거합시다.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 (1). N제를 준비하고 1회독을 합니다.
- (2).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100% 알고 정말 이걸 버려도 된다하는 문제를 발견한다.
- (3). 해당되는 문제가 들어있는 페이지를 찢어버린다. (양면인쇄 주의)
- (4). 불안해서 못 찢는 페이지만 남아있는 얇은 오답노트 탄생

1. 정말 찢어버려도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문제를 읽고 '정말 이걸 찢어서 버려도 될까' 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순간에 짧게나마 문제를 한 번 더 풀게 되는 복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려하지 않았던 문항도 더 들여다 보게 되고 '아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없는 것' 즉 자신도 몰랐던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2. 찢어버린 페이지 나중에 보고 싶어서 어찌죠?

그래서 더 신중해 질 거고 찢을까 말까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습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시 안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중에 다시 봐야지'는 일반 학생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렇게 만든 오답노트는 다시 본다는 건가요?

사람은 텍스트 보다 이미지를 더 인상 깊게 기억합니다.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의 텍스트 보다 찢는 행위 자체가 인상 깊게 남고, 불안함에 찢지 못한 페이지는 더욱 기억에 남을 겁니다. 본인이 아주 약간의 의지만 있다면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찾아보기도 매우 쉽습니다.

4. 이렇게 만든 오답노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시간단축, 복습편리의 일차적인 장점도 크지만 최대의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의 의욕이 생기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결과물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오답노트를 작성하여 복습해보면 처음 만든 30장짜리 오답노트가 20장, 10장을 거쳐 5장 이하로 점점 얇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 오답노트 작성법은 파이널 시기에 정말 큰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보고 싶어집니다.

여기까지 읽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글 솜씨가 부족하네요.
오늘은 학습에 취지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실 문제에 취지를 부여하는 방법도 하고 싶었지만 너무 바빠서 다음기회로 해야겠네요.
끝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과 관련이 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쪽지나 문자, 카톡,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담당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점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들 열공 합시다. 저도 수업준비 열심히 할게요!

2020년 4월 16일 우주설(정재민) 작성